

동물과 인간 사이의 숙명적 관계 상징하는 동물원

동물원에 관한 명상

유호종 | 연세대 보건대학원 보건의료법윤리학과 연구강사

동물원은 인간이 동물과 친해지고 싶은 마음을 반영한다. 그러나 동물이 인간과 친해지는 것은 낯선 일이다. 그러므로 동물원은 인간과 동물 사이의 넘어설 수 없는 숙명적인 한계를 드러낸다. 동물원 안에서 동물들은 문명의 보살핌을 받고 안전을 보장받지만, 우리에게 갇힌 동물들은 자연 속 동물들처럼 인간을 고양이시키지 못한다.



동물원에서는 인간을 고양이시키는 자연의 어떤 면모와 경지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사진은 어린이대공원의 원숭이 우리.

읍이나 소도시 등지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이라면 대개는 그 시절 추억의 장소 가운데 동물원이 끼어 있을 것이다. 어린이날 같이 특별한 날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신이 나서 갔던 곳이 지방 큰 도시의 동물원이고, 멀리 서울 사는 친척집에 갔을 때 친척 어른이 호의를 베풀어 구경시켜주던 곳이 창경궁 동물원(창경원)이었다. 오래된 사진처럼 빛 바랜 그 추억 속의 동물원에 우리는 이제 다시 우리 아이들의 손을 잡고 간다. 아이들이 예전의 우리처럼 그렇게 추억거리를 쌓아가는 것을 보면서 말이다.

동물에 대한 두가지 태도, 동물원과 정육점

동물원은 일상적이라고 보기는 힘든 좀 특별한 공간이긴 하지만, 웬만큼 큰 도시면 없어서는 안될 것처럼 느껴지는 곳이기도 하다. 과연 이 동물원이란 공간에는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을까? 몇년 전 개봉돼 큰 인기를 끌었던 영화 <미술관 옆 동물원>이 있기도 하지만 동물원이 어떤 공간인지는 미술관과 비교할 때보다는 정육점과 비교할 때 더 잘 드러날 것이다.

정육점과 동물원. 이 두 공간은 인간이 그 시초부터 이 지구상에서 함께 살아온 다른 동물들을 대하는 두 가지 다른 태도를 잘 보여준다.

먼저 인간은 어떤 좋은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동물을 이용해 인간의 이득을 증진시키고자 했다. 농사일 등 힘든 일을 하는 데 동물을 이용했으며 운송수단, 통신수단, 감식수단으로도 동물을 이용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간은 동물의 살을 식량으로, 그 가죽을 옷으로 이용했다. 이를 위해 예전에는 주로 사냥을 했고 오늘날에는 주로 사육을 하고 있다. 양계장, 축사, 목장 등이 인간이 동물

에게서 먹을거리와 입을거리를 얻어내기 위해 마련한 장소라면, 정육점은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 동물을 이용하려는 인간의 의도가 어떤 가치도 없이 직접적이고 분명하게 드러나는 공간이다.

인간은 또한 동물을 먹을거리나 입을거리로 이용하는 것뿐 아니라, 단순히 동물을 보고 쓰다듬고 안고 같이 장난치면서 즐거움을 얻기도 한다. 이럴 때 인간은 동물 그 자체에 대해서 흥미와 관심을 느끼고 그 자체에서 기쁨을 얻으려 하는 것이다. 이런 태도로 동물을 대하는 대표적인 방식이 애완동물 키우기다. 개와 고양이는 그 타고난 사교성으로 인간의 애완동물이 돼 때로는 사람 못지 않은 호감을 누리면서 한 평생을 살기도 한다.

그러나 동물과 친해지고 싶은 인간의 마음과 태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동물들이 더 많다. 신기하고 귀여워서 전혀 해칠 마음 없이 가까이 다가가 쓰다듬기라도 할 양이면 그 동물들은 잔뜩 겁을 먹고 도망가 버리거나 으르렁거리며 위협적인 자세를 취한다. 이때 우리들은 이런 마음을 몰라주는 동물들에 대해 답답함을 느낀다. '우리 말만 잘 들으면 쉽게 음식을 얻어먹기도 할 것이고 자기들에게도 좋을 텐데 그걸 모르니 어리석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백구야 훨훨 날지 마라 너 잡을 내가 아니로다"고 읊은 옛 선비도 혹시 이런 심정은 아니었을까.

동물과 인간이 친해지는 것은 낯설다

동물이 이렇게 피한다고 인간이 동물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의 충족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박제다. 동물들이 하도 도망가거나 으르렁거리서 아예 죽어 박제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박제는 언제나 쉽게 보고

만질 수 있게 만들어놓는 것이다. 만질 수는 없지만, 가까이서 보기 위한 또 한가지 방법이 있는데, 동물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철장을 만들고 철망을 씌워 가두는 것이다. 그곳이 바로 동물원이다.

동물원은 동물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어떤 넘어설 수 없는 숙명적 한계 같은 것을 보여준다. 인간이 아무리 동물과 친하려 해도 많은 동물들은 인간의 친구가 될 수 없게 태어난다. 그리고 이것이 어린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세상의 진실이다. 어린 아이의 상상이나 놀이, 동화책 속에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 이도 그 사이에서 함께 뒹굴고 마을의 모든 동물들이 모여 회의도 하고 놀이도 한다.

하지만 실제 세상은 동물들에게 식량과 공간의 부족 상태가 지속되는 곳이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잡아먹거나 싸워서 쫓아내는 등 생존경쟁을 벌여야 한다. 지금 남아 있는 동물들은 그런 과정을 극복하고 살아남은 것들이다. 이런 동물들의 현실에 비춰보자면 서로 사귀고 친해진다는 것은 영 낯선 일이고, 이런 동물들이 모여 사는 곳 또한 이 세상인 것이다.

문명의 울타리 안에서 안전 보장받는 동물들

동물원은 동물은 전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인간의 일방적인 의지로 만들어진 인간과 동물의 만남의 장소다.

동물 입장에서 보면 동물원은 박제와는 비교할 수 없다. 얼핏 보면 동물원은 동물에게도 그렇게 나쁘기만 한 장소는 아니다. 우선 동물원에 수용된 동물들은 숙식이 쉽게 해결된다. 더 이상 먹이를 찾아 헤매지 않아도 되고 먹이를 구하지 못해 배고픔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 더 이상 다른 힘 있는 동물에게 잡아먹힐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즉 대부분의 동물들에게 가장 중대한 먹는 문제와 안전 문제가 동물원에서는 다 해결되는 것이다. 게다가 병에 걸리거나 상처를 입으면 치료까지 해준다.

물론 동물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것이다. 어떤 동물원은 시멘트 바닥의 좁은 공간에 동물을 가둬놓고 제대로 돌보지 않아 동물들이 인간으로 따지면 수인과 마찬가지로 생활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정 정도 이상의 시설과 규모, 동물의 복지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동물원이라면 사람들의 어린 시절 추억 속의 즐겁고 마음 설레던 곳으로서의 이미지와 크게 어긋나지는 않을 것이다.

인간과 동물은 수십억년의 시간과 끝없이 광활한 우주 공간 속에서 우연이라면 엄청난 우연으로 이 지구라는 작은 공간 속에서 같은 시간대에 존재하게 됐다. 그러면서 서로 살아남기 위해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벌여야 했던 인간이란 동물과 다른 동물들이 비록 철책 등을 사이에 두고 있기는 하지만 죽음의 공포 없이 평화롭게 서로를 바라보고 또 즐거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동물원이라는 공간은 그런대로 긍정적인 공간일 수 있을 것이다.

자연을 인간에 맞게 개조해 나가는 문명은 동물에 대해서는 동물원이란 공간을 만들었고 식물에 대해서는 정원이란 공간을 낳았

다. 인간은 동물원 가기와 정원 가꾸기를 통해 자연을 크게 괴롭히지 않으면서도 편안하고 쉽게 자연을 느끼고 향유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자연과 만나는 것은 결코 자연의 진면목을 드러내지 못한다.

인간을 고양이처럼 못하는 동물원

젊은 시절 나는 정신적으로 힘든 일이 있어 혼자 무작정 여행길에 나선 적이 있다. 겨울이었는데

이곳 저곳 정처 없이 다니다가 태백 준령을 오르게 됐다. 겨울산, 인적 하나 없었고 산마루에 올라섰을 때는 오직 매서운 바람만 끝없이 이어지는 능선과 능선 위를 치달리고 있었다. 그 차갑고 허허로운 공간, 어떤 온기 한 점도 용납할 것 같지 않은 곳에서 마음도 그만큼이나 차갑게 허허로워져 얼마를 서 있었을까. 문득 하늘을 바라보다 창공을 천천히 날고 있는 매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됐다. 그 여유 있고 늙은 모습, 겨울산의 혹독한 바람과 끝없는 적막을 제압하는 듯한 그 당당함은 그 뒤 내 마음 깊이를 새겨졌다.

동물원의 동물들에게서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동물원의 문명화된 새들은 철망 때문에 날 수도 없지만 날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인다. 동물원에서 보이는 동물들의 모습이 동물과 자연의 모습 전부는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 특히 자연이 가지고 있는, 우리를 고양이처럼 수 있는 어떤 경지와 면모가 동물원이라는 공간에서는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런 차이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동물원과는 다른 어떤 공간이나 접근 방식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런 공간과 접근방식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우리와 함께 생명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동식물들과 진정으로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인간의 고양을 위해서 이런 물음에 답할 필요가 있다. ■

유호중씨는 서울대 국어교육과와 서울대 철학과 대학원(철학박사)을 졸업했다. 현재 연세대 보건대학원 보건료법윤리학과 연구강사로 재직중이다. <도덕적 비난과 형벌의 정당화> 등의 논문을 발표했고, <떠남 혹은 없어짐 : 죽음의 철학적 의미> 등을 펴냈다.

다음은 동물원이 노래한 김창기 작사·작곡의 <동물원>이다.

“동물원에 가 보았지 추위 움츠린 어깨로/저물어 가는 햇살을 받으며 두리번거렸지/동물원에 가 보았지 흔들거리는 걸음에/바람은 갈색 나뭇잎 날리며 흩어져 버렸지//고무푹션을 움켜쥔 아이와 하품하는 사자들과/우리 안을 맴도는 원숭이는 지나온 내 모습이었지/쓸쓸한 그 모든 것 사이로 걸어가는 하늘엔/파란색 커다란 풍선이 날아오르고 있었지//동물원에 가 보았지 추위 움츠린 어깨로/저물어 가는 햇살을 받으며 두리번거렸지/문득 걸음을 멈춰서 뒤라 말하려 하였지/성난 파도와 같은 마음으로 말하고 싶었지//고무푹션을 움켜쥔 아이와 하품하는 사자들과/우리 안을 맴도는 원숭이는 지나온 내 모습이었지/쓸쓸한 그 모든 것 사이로 걸어가는 하늘엔/파란색 커다란 풍선이 날아오르고 있었지//동물원에 가 보았지”